

순천 에너지 자립 박차... 햇빛발전소 속속 건립

창녕리 시민참여형 발전소 내일 준공... 전기차 확산도 앞장 에너지자립마을 20곳 늘리고 순천만정원 태양광 시설 확대

전국을 대표하는 친환경 생태도시인 순천시가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포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순천시는 대한민국 국가정원 1호 지정 등으로 업그레이드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을 통해 전국에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참여형 건립으로 환경 보호·주민 수익 창출=시는 오는 22일 나안면 창녕리에 위치한 시민 참여형 햇빛발전소 준공식을 개최한다. 일반 시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했으며, 올 3월부터 공사비 75억원이 투입돼 3MW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됐다. 연간 발전 수익금은 7억5000만원이 예상된다. 수익금은 햇빛 발전소에 출자한 조합원에게 분할 배당되며 일부는 인근 마을 공동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자원순환센터 주변마

을인 문길마을과 구산마을 내에 마을공동 햇빛발전소가 들어섰다. 이 발전소는 마을 공동 부지에 건립한 태양광 발전시설로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한 뒤 발전수익금을 마을 공동 사업으로 사용하는 공익형 발전소다. 발전용량은 각각 70kW(연간 생산량 89MWh)와 100kW(연간 생산량 127MWh)다. 햇빛발전소는 시민 스스로 에너지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에너지 자립도시 위한 5대 실천분야 주력=순천시는 민선 6기 들어 에너지 자립 도시를 위한 에너지 기본계획을 선포하고 에너지 5대 실천분야인 에너지 생산, 교육, 효율, 복지, 생태 관광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효율화와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주택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역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순천시는 '주택 도시

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해 공급관 공사비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시는 또 전기자동차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올해에만 개인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난 6월까지 전기자동차 50대와 완속충전기 1기를 지원했다.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승강장 등 교통안전 시설에도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 절감형 탄소섬유 발열 의자 8개소, 승강장 LED 태양광 안전 조명등 40개소, 버스정보시스템 11개 등 태양광을 활용한 시설물 배치를 확대하고 있다.

순천시는 앞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을 읍·면·동 20개소에 조성하고 에너지 효율형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비롯한 녹색에너지 교육 체험센터 건립,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조성, 도심첨단사업단지 내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도입 등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순천만국가정원을 에너지 자립정원으로 조성=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으로

대한민국 최초 에너지자립 100% 국가정원으로 조성해 에너지 생산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순천만국가정원 동문과 서문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현재 에너지 자립률을 48%까지 끌어올렸으며, 오는 2018년까지 자립률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순천시는 올해 순천만국가정원 내 자체 전력의 효율적 사용을 목표로 국비 2억 7000만원 등 총 사업비 5억 4000만원을 투입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한 지역 에너지 절약(용·복합) 사업인 ESS(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조중훈 순천시장은 "21세기 시대정신 완성은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 시민이 에너지 자립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순천 시민들이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과 관련 교육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시 24일 제1회 전남수학축전 수학, 놀이처럼 즐겨볼까

체험마당·창의성대회 등 흥미 유발 다채로운 행사



전남도교육청이 순천에서 제1회 전남수학축전을 개최한다. 2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4일 순천팔마체육관에서 '제1회 전남수학축전'이 열린다. 이번 축전은 수학 창의성경진 대회, 수학 놀이터 등으로 구성되며, 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2만여명을 대상으로 수학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수학 체험 부스 95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임시에 치유된 수학교육으로 수학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수학교육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번 수학축전의 목표라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특히 수학 체험전 프로그램에서는 수의 세계, 곡선의 세계, 평면도형의 세계, 입체도형의 세계, 놀이속의 수학, 전시(통계), 수학 놀이터, 생활속의 수학으로 나눠져 진행된다.

도 교육청은 이번 수학축전을 통해 창의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복합적인 사고능력 및 수리과학적 탐구능력을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박선미 미래인재과장은 "수학에 상상력을 더하고 무관심은 빼고 기쁨을 곁들여 가치창조의 무한대가 될 것"이라며 "수학교육의 기초를 다지고 흥미를 유발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전남수학축전에 많은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김장쓰레기는 노란색 전용봉투에 버리세요

기존 음식물쓰레기와 분리 내달 15일부터 집중 수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김장 쓰레기 발생 세대는 김장 쓰레기 전용 수거 봉투에 담아 단지 내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거 용기 옆에 배출하면 된다.

시는 매년 100여 톤의 김장쓰레기가 발생함에 따라 원활한 수거를 위해 전담인력 40명과 수거 차량 13대를 투입하는 한편 수거시간도 2시간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채소류를 담은 그물망이나 노끈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하는 경우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의 고장 원인이 되며, 제거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면서 "반드시 이물질들을 분리 후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순천시는 20일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내달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장쓰레기를 집중 수거한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김장쓰레기의 경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데다 수분 함유가 많아 지난 2013년부터 노란색 전용 수거 봉투를 제작해 기존 음식물 쓰레기와 분리 배출토록 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는 기존 방식대로 음식물 쓰레기 전용 용기를 사용하면 되며, 김장 쓰레기는 노란색 김장 쓰레기 전용 수거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국화 1000만 송이로 만든 순천만정원 조형물 눈길

순천만국가정원이 국화 1000만 송이로 꾸끼리, 에펠탑 등 조형물 설치해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네덜란드 정원, 정통이 정원, 서문 입구 등에서도 다양한 국화를 만날 수 있다.

순천시는 또 순천만국가정원에 연출할 국화와 겨울 꽃양배추 등 6만 본을 2개 화훼법인과 계약 재배를 통해 오는 11월까지 납품하도록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20일 "파란 하늘과 호수, 형형색색의 국화가 어우러진 순천만국가정원에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만국제습지센터 1층에서는 오는 27일부터 11월 8일까지 국화본재 대전이 열린다.



순천만정원 전망대 디자인 윤곽...꽃 개화 모습 또는 전통문양

건축가 멘디니 강연서 2개안 제안 순천시가 순천만국가정원에 건립을 추진하는 전망대는 꽃이 열리는 형태 또는 한국의 전통 문양을 형상화한 모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는 지난 16일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순천만국가정원 전망대 디자인을 맡은 세계적인 건축가 겸 디자이너인 알레

산드로 멘디니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다. 멘디니는 강연회에서 "전망대 디자인은 기능적이고 호감과 감동을 줘야 한다"며 전망대 건립 디자인 콘셉트에 대해 '꽃이 열리는 형태'와 '한국의 전통 문양을 형상화'한 2개 안을 제안했다.

멘디니는 "순천만국가정원은 몇 년 되지 않았는데도 많은 관광객이 입장한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정원"이라며 "전망대가

순천만국가정원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망대는 순천 도심이 전체적으로 보이고 360°를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장소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디자인계의 대부인 알레산드로 멘디니는 삼성전자, 알레시, 필립스, 까르피에, 스와치, 에르메스, 에스피시그를 등 세계적인 명품 디자인에 참여한 디자이너다.

순천만국가정원 전망대 건립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성 사업에 포함됐지만, 그동안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근 대한민국 국가정원 제1호 지정을 기념해 KEB 하나은행 등에서 전망대를 건립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설립에 탄력을 받고 있다.

조중훈 순천시장은 "알레산드로 멘디니의 작품이 들어서면 찰스 잭슨의 '호수정원'과 함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순천 대표 정원 문화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0-3600-9955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고용직 결혼정보회사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	여	남	여	남
의사, 변호사, 박사, 원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법원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공무원, 교사, 교수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대기업 간부
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법원사	26~39세	회사원, 자영업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무출산 여성' 희망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VIP 희망 여성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공무원, 교사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간호사, 회사원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자영업, 가사
				'무자녀 남성' 희망
				29~53세
				27~63세
				32~58세
				29~48세
				35~64세
				28~48세

강남역 7번출구 70m 해나빌 B1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63) 275-7766